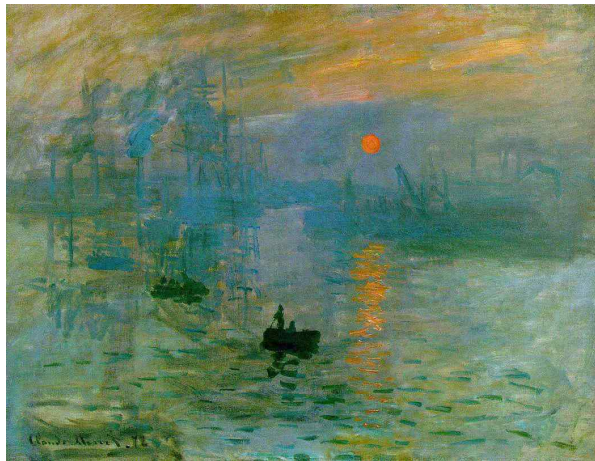


展

Impressionism

인상주의, 그 **빛**을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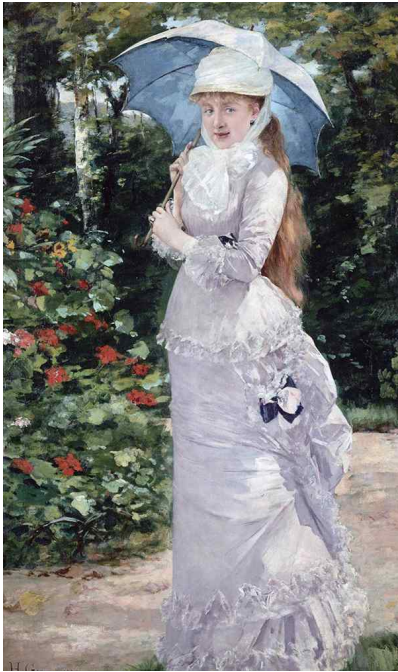
인상주의 미술이란, 19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미술운동이다. 당시 프랑스는 살롱전이라는 전시회를 열어 좋은 작품들을 공개적으로 전시하고는 했는데, 사진술의 발명으로 더 이상 사물을 똑같이 그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마네, 모네 등의 화

가들은 색다른 스타일의 그림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당시 비평가들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없고, 남는 것은 인상밖에 없다”고 비꼬았는데, 여기에서 ‘인상주의’ 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19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도시 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웠는데, 이러한 변화는 예술계에도 신선한 창작의 바람을 몰고 왔으며, 이 시기의 작가들은 태양빛이 찬란한 야외에서 빛을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색을 작품 속에 표현하는 인상주의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는 근대 서양미술사에 있어 가장 획기적인 순간으로 기록되고 있다. 인상주의의 뒤를 잇는 신인상주의의 대가인 조르주 쇠라와 폴 시냐크는 찬란한 빛의 움직임을 섬세하고 화사한 색상의 점을 찍어 생기 넘치는 화면을 구현했다.

인상주의로 유명한 화가는 모네이며, 그 중에서도 <해돋이, 인상>이라는 그림이 인상주의의 시초로 잘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화풍을 새롭게 개척한 폴 세잔, 폴 고갱, 빈센트 반 고흐 등의 작가들은 미술사의 살아 있는 신화로 남았다.

입구에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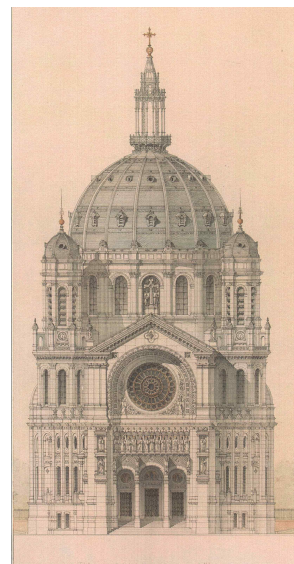
화가 : 앙리 제르백스

제목 :

파리의 건축

Architecture

1852년부터 1870년까지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 남작은 파리에 대대적인 도시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이에 도시는 새로운 건물들로 뒤덮인다. 파리에 20개 구가 신설되면서 각 구역마다 구청과 교회, 학교, 시장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필요했고, 산업혁명에 따라 석재에 혼합된 철이나 벽돌 테라코타 등 다양한 자재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산되었다. 당시에 지어진 건물에서는 양식에 대한 망설임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매우 정확하게 세워진 도시 계획에 따라 세 개의 도로망이 새로운 대로와 연결되면서 파리는 수도중의 수도로 거듭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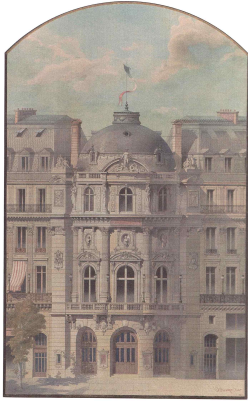


빅토르 발타르 : 작가

: 제목

아래의 그림들은 19세기에 지어진 파리의 건축물 들입니다.

맞는 것끼리 서로 연결해 보세요.



프레데릭 소리유

- 풍네프 다리에서 본
파리 최초의 백화점
벨 자르디니에르



오귀스트 조제프

- 파리 보드빌 극장 정면도



막스 베르틀랭

-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
산업관 전경



라울 브랑통

- 파리 6구 위스망스가 1번지

I

인상주의, 그 이후

Claude Monet

Edgar Deg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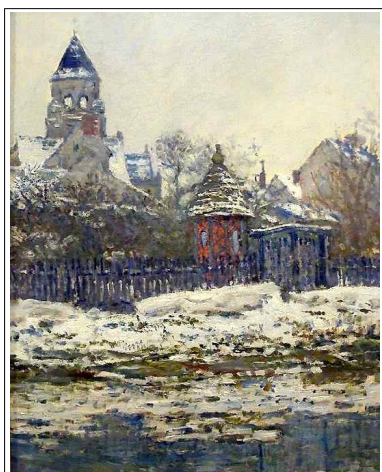
Pierre Auguste Renoir

Camille Pissarro

공식 살롱전에서 낙선을 거듭했던 모네와 그의 동료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평가하는 심사위원도 없고, 평가에 따른 시상도 없는 그들의 자유로운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첫 번째 전시회는 1874년에 열렸는데, 폴 세잔, 클로드 모네, 에드가 드가, 알프레드 시슬레, 베르트 모르조, 카미유 피사로, 오귀스트 르누아르, 외젠 부댕 등의 작가를 포함하여 30여명의 작가들이 총 165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이후 이 전시회는 지속적으로 열렸으며, 인상주의를 이끌어 가게 된다.



이 그림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이 그림은 클로드 모네의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을 기록해 보세요.

아래의 그림들은 모두 <클로드 모네>의 작품들이랍니다.
제목을 찾아서 기록해 보세요.



제목 :



제목 :



제목 :



제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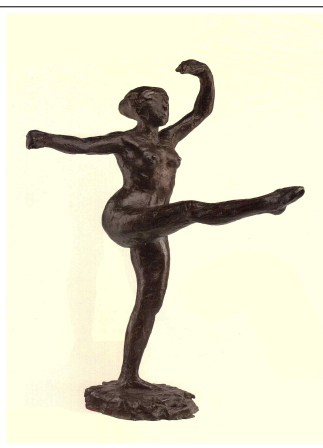
인상파 화가의 조각들

아래의 조각들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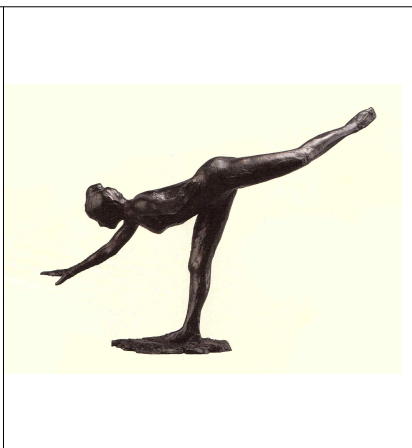
작품의 제목을 기록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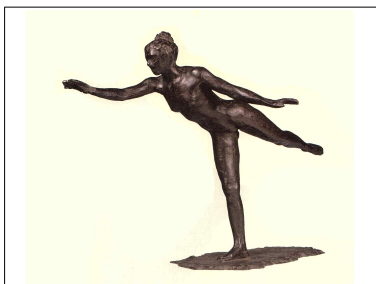
제목 :



제목 :



제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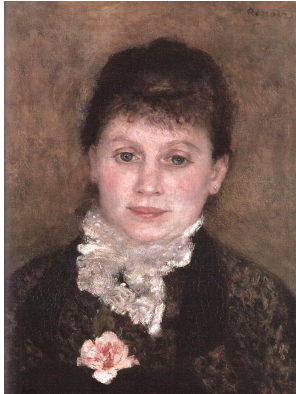
제목 :



제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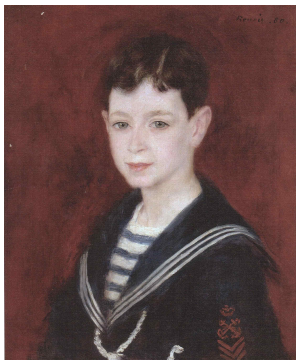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들은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작품입니다.

그림과 제목을 연결해 보세요.



•

• 어린 시절의 페르낭 알땅



•

• 앉아있는 젊은 여인



•

• 조스 베르넵 젠 부인과
아들 앙리



•

• 하얀 레이스 장식을 한 여인

II

새로운 시각, 신인상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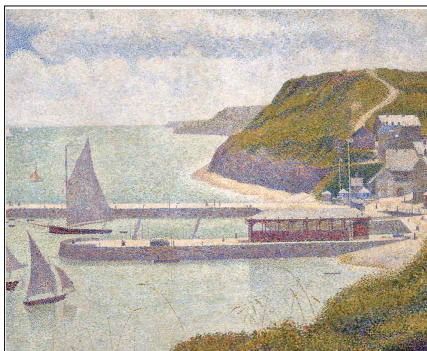
Néo-Impressionisme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조르주 쇠라>와 <카미유 피사로> <폴 시냐크> 등을 중심으로 행해진 점묘주의 운동이다. ‘신인상주의’라는 용어는 1886년 인상주의 화가들의 여덟 번째 전시회에 쇠라가 출품한 <아스니에르에서의 목욕Baignade à Asnières>을 보고 비평가 <펠릭스 페네옹>이 「근대예술」이라는 브뤼셀 잡지에 발표한 비평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25세였던 쇠라는 여기서 후에 이 운동의 이론적 대변자 역할을 한 시냐크를 만나 ‘양데팡당 미술가 협회’라는 새로운 그룹을 만들게 된다.



작가 : 앙리 에드몽 크로스

제목 :



작가 : 조르주 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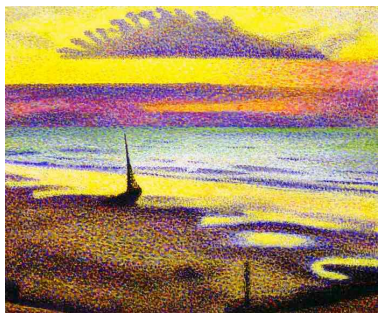
제목 :

아래의 그림들은 신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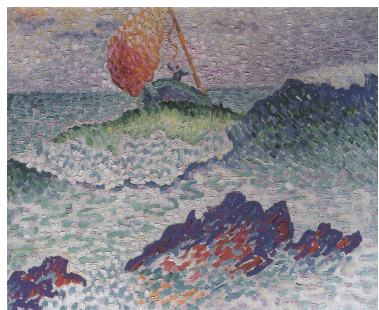
맞는 것끼리 연결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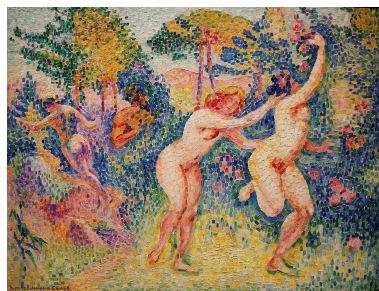
- 조르주 레망
하이스트 해변



- 폴 시냐크
안개낀 에르블레
작품번호 208



- 앙리 에드몽 크로스
요정들의 도피



- 앙리 에드몽 크로스
난파



- 카미유 피사로
루앙의 보이델디유 다리

근대도시, 파리의 삶과 예술

아래의 사건이 일어난 해를 기록해 보세요.

- | | |
|----------------------|--|
| <input type="text"/> | : 파리 세계만국 박람회 개최 |
| <input type="text"/> | : 첫 번째 인상주의 전시회에서 모네의 <해돋이,인상> 전시 |
| <input type="text"/> | : 세번째 인상주의 전시회에서 르누와르의 물랭 드 라 갈레
트 전시 |
| <input type="text"/> | : 르동, 쇠라, 시냐이 앙데팡당전에 참여 |
| <input type="text"/> | : 마지막 인상주의 전시회 개최 |
| <input type="text"/> | : 구스타프 에펠이 설계한 에펠탑 건축 |
| <input type="text"/> | : 모리스 드니가 <신 정통주의 정의>에서 나비파의 예술관
발표 |
| <input type="text"/> | : 고갱이 타히티로 떠남 |
| <input type="text"/> | : 파리 지하철 개통 |
| <input type="text"/> | : 살롱 도른느에서 야수파 화가들의 작품 소개 |
| <input type="text"/> | : 파카소가 <아비뇰의 처녀들>제작 |
| <input type="text"/> | : 제1차 세계대전 발발 |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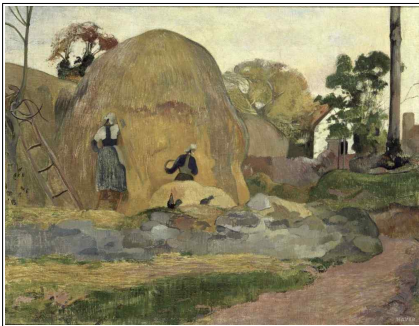
원시적 삶을 찾아서, 고갱과 풍타방타

1860년부터 풍타방에는 ‘축제의 지역’에 이끌린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집단을 이루어 정착하게 되었으면 이들은 특히 매우 간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진정으로 혁신적인 미학을 주도하게 된다. 이 작은 마을은 1862년에 이르러 예술가들이 은신처가 되었는데, 파리의 예술 아카데미와 학교가 문을 닫는 여름동안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을 찾았다. 브르타뉴 지방은 오랫동안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어서 산업화된 도시가 갖춘 모든 조건들이 부재하며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한 삶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지방이 가진 단순하면서도 정열적이고, 동시에 우울한 분위기, 비밀과 전설에 대한 숭배 신비함에 대한 열정, 거칠고 매혹적인 대자연 등은 고갱과 그의 동료들에게는 마치 신세계의 발견과 같았다.



작가 : 폴 고갱

제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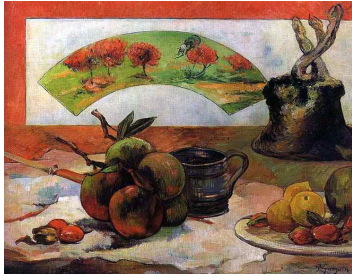


작가 : 폴 고갱

제목 :

아래의 그림들은 풍타방에 머물면서 작업한 작품들입니다.

맞는 것끼리 연결해 보세요.



- 에밀 베르나르
상징적인 자화상 일명 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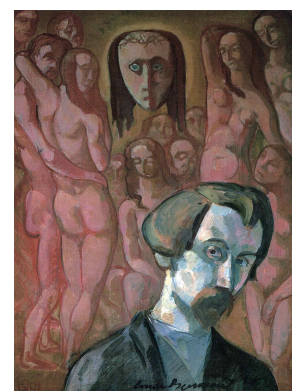
- 폴 고갱
부채가 있는 정물



- 메이에르 데 한
당근이 있는 정물



- 폴 세뤼지에
정물, 화가의 아틀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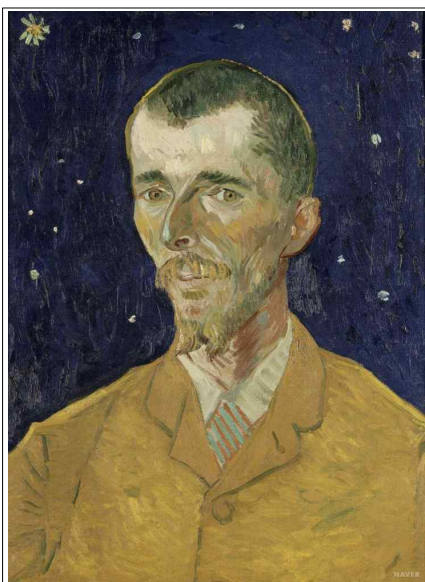
- 폴 세뤼지에
르 폴뒤의 꽃이 핀 울타리

IV

반 고흐와 세잔, 고독한 천재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은 그의 삶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머무는 지역이 바뀔 때마다 그의 새로운 화풍으로 새로운 경향의 작품들을 그려내곤 하였다. 네덜란드 브라만트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반 고흐는 성직자로 살아가고자했던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1880년 이후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전념하기 시작했다. 1888년 이후에는 남부 프랑스의 아를에서 자신의 예술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세잔은 초창기부터 정물화에 특별한 애착을 보이며 물체 및 색에 가해지는 빛의 효과를 연구하고 수직과 수평을 응용해 공간을 창조하는 기법을 연습했다. 자신의 고향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세잔은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과는 달리 자연을 추상적이며, 이상적인 재구성의 대상으로 관찰했으며, 그것에서 영원과 정신의 본질을 찾고자 했다.



옆의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제목을 찾아서 기록해 보세요.

아래의 그림들은 <폴 세잔>의 작품입니다.
 작품의 이름을 찾아서 기록해 보세요.



제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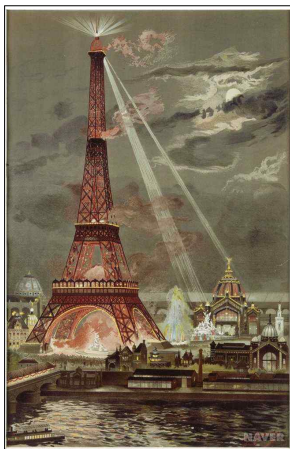


제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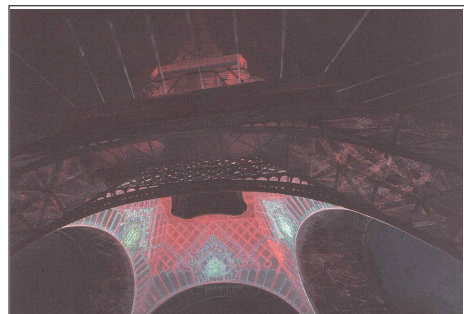
제목 :

에펠탑, 근대성의 상징



제목 :
 1889년 만국박람회 당시 조명을 밝힌 에펠탑

작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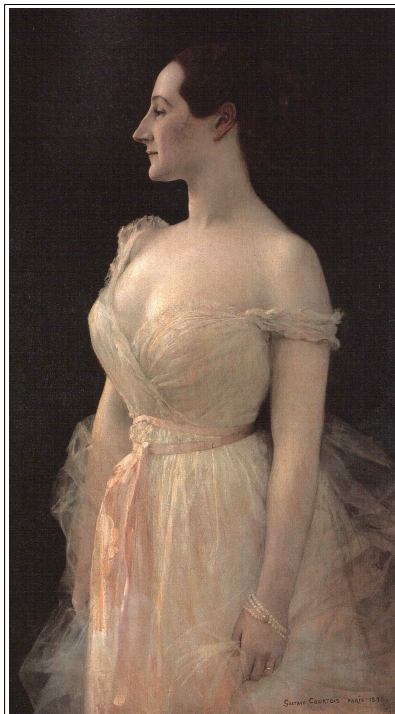
1937 국제박람회를 위해
 조명을 밝힌 에펠탑
 : 작가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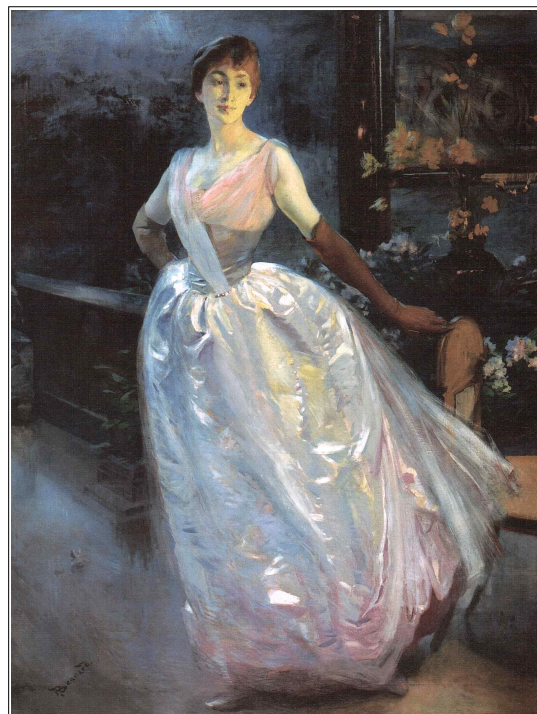
파리,

아름다운 시절

1791년 이래 살롱에 모든 예술가가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초상화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화가들은 초상화를 통해서 탁월한 솜씨로 현실을 수정했고, 이에 매료된 미술 애호가들 덕분에 화가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생애의 가장 멋진 모습을 간직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초상화는 사회적 성공을 나타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세계’라고 불려 지던 파리의 사교계는 춤, 오페라, 연극, 오페레타가 유행했는데, 사람들은 빛의 도시 파리에서 쾌락을 즐기며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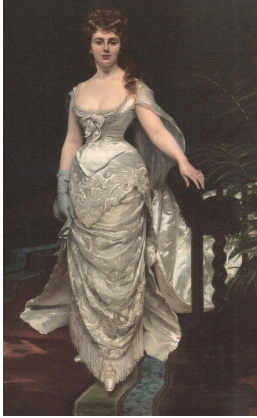


작가 :
제목 : 고트로 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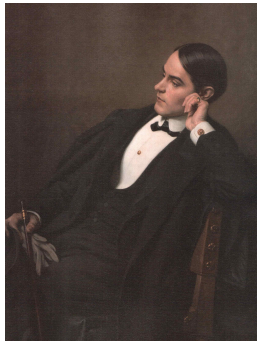


작가 : 알베르 베나르
제목 :

당시에는 어떤 화가가 그리더라도 초상화를 그리는 방식은 거의 동일했는데, 피부 빛을 환하게 표현하였고, 상냥한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맞는 것 끼리 연결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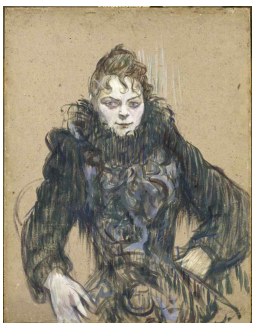
- 알베르 다왕
- 남자의 초상



- 카를루스 뒤랑
- 앙포르티 후작 부인



- 존 싱어 사전트
- 카르멘시타



-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
- 검은 모피목도리를 두른 여인

유럽 근대공예의 원천

Le japonisme, source de la modernité.



티파니 사의 예술파트장인 <에드워드 찬들러 무어>가 만든 이 작품은 무슨 용도로 사용된 것일까요?



<뤼시앙 팔리스>의 작품인 이 꽃병은 무엇으로 만든 것일까요?



옆에 있는 <뱀모양 장식의 보석함>은 누구의 작품인지 기록해 보세요.



〈폴 포요〉가 만든 빗입니다.
여기에 있는 곤충은 무엇일까요?



〈외젠 그라세〉의 브로치 ‘환영’입니다. 여기에
사람 얼굴이 있는데, 몇 명인지 찾아보세요.



〈에밀 레베〉의 주전자인데,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주전자일까요?



〈에밀 갈레〉의 꽃병입니다. 여기에 장식된 꽃은
무슨 꽃인지 알아보세요.



‘루소’세트의 접시입니다. 누구의 작품인지 찾아
서 기록해 보세요.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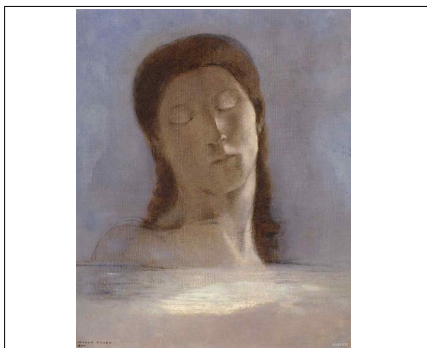
세기말의 꿈, 상징주의와 나비파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의 반동으로 등장한 상징주의는 기계과학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를 거부하는 지식인 및 예술가들은 형언할 수 없는 것들, 즉 생각이나 내적 환영, 꿈과 같은 것들을 표현해 내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주제 면에서나 표현방식 면에서 상징주의가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해 준다.

나비파는 다양한 면모를 가진 상징주의의 거대한 등장과 함께 나타난다. 그 기원은 18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폴 세뤼지예가 퐁타방에서 그린 〈부적〉이라는 제목의 풍경화이다. 이 그림은 쥘리앙 아카데미의 동료들에게는 매우 새로운 발견이었으며, 이들은 스스로를 나비파 예술가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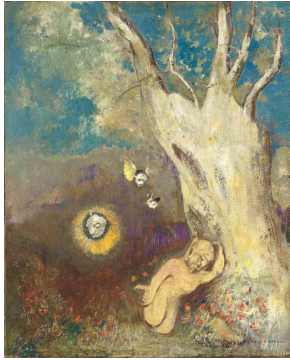


작가 : 피에르 뫼비 드 사반
제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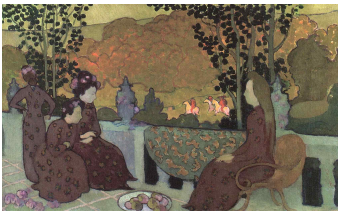


작가 : 오딜롱 르동
제목 :

상징주의와 나비파와 관련된 작품들입니다.
맞는 것끼리 연결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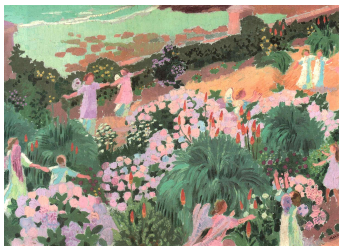
- 모리스 드니
9월
젊은 여인들의 방을 위한 패널



- 오딜롱 르동
칼리반의 잠



- 피에르 보나르
식탁위의 사과접시



- 페르낭 크노프
마리 몽농



- 모리스 드니
천국